

우리는 학교 프라임 사업으로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다녀왔다.

우리가 견학 일정을 잡고,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을 배웠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학과 특성을 잘 살려 벨기에의 모비스 중앙물류센터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무역관(KOTRA), 로테르담 항만청 견학이 3곳을 중점으로 하여 일정을 잡았다.

세 곳과 연락을 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물류센터는 교수님께서, 무역관은 우리가 연락을 하여 방문을 하였고 로테르담 항만청은 방문을 하지 못하고 기념관을 다녀왔다.

연락이 닿고 잡은 일정순서대로 일정을 정하다 보니 벨기에의 브뤼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순서가 잡혔다. 그 다음 숙소를 예약하고 그 주변 볼거리나 박물관 등을 조사하여 전체적인 여행 일정을 잡았다.



1/3 벨기에로 출발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2일 저녁 부산 사상 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심야버스를 탑승했다.

베이징과 암스테르담을 거쳐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하였는데, 20시간에 가까운 비행으로 다들 피곤해서 저녁만 간단히 먹고 야경 구경하러 갔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1/4 문화체험

견학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문화체험을 하였고 왕립도서관의 예술의 언덕부터 유명한 오줌싸개 동상까지 구경을 하였다. 시청 앞 광장에서 푸드트럭의 와플을 먹었는데 값이 비싸고 양은 적고 달기만 엄청 달았다.

미술관을 둘러본 뒤 저녁거리를 사서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



1/5 브뤼헤의 모비스 중앙물류창고 견학

이번 견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 창고 견학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고 출발하였다. 외진 곳에 있어 한참을 걸어야 했다. 캐리어를 이끌고 반 비포장 도로를 30분넘게 걸어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모비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슈틸리케 감독을 닮은 프랑크푸르트의 본사에서 나온 부사장이 우리를 반겨줬다. 우리는 단순 견학을 간 것이었는데 모비스에선 한국에서 왔다고 높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셨고 PPT자료까지 준비해서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물류 창고가 왜 그 곳에 위치했는지, 물류창고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까지 설명을 해주셨다.

돌아가는 길은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주셔서 쉽게 갈 수 있었다.

다시 기차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였고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 가서 모처럼 포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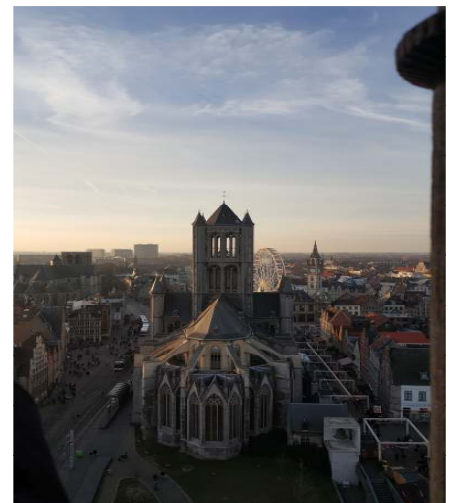
캐리어를 끌고 세 지역을 이동해서 너무 피곤했다.

다음 날은 견학일정이 없어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잤다.



1/6 브뤼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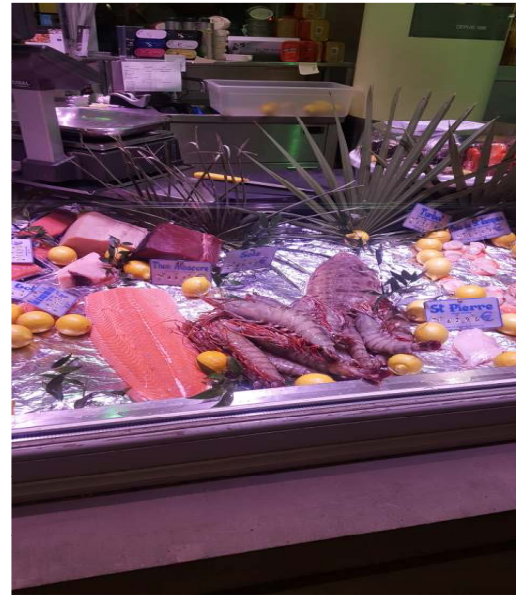
아침 일찍 벨기에의 브뤼헤라는 도시로 관광을 떠났다. 그곳에서의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지만 편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두껍게 입고 출발을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브뤼헤를 가다가 엄청 떨었다. 이윽고 브뤼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었고 반가웠다. 그리고 각종 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다. 브뤼헤 광장과 바실리크 성당 등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인상 깊었다. 벨기에에서 항상 보던 기념품들이 대부분 다 여기 있던 건물들이라는 게 얼마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지 알 수 있었다. 사진을 찍고 사람을 나눠서 쇼핑 등 제일 신나는 돈을 쓰러 다녔다. 관광품을 샀던 친구들도 있고 초콜릿같이 먹을 것을 샀던 친구도 있고 쇼핑을 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점심을 먹을 곳을 찾던 중 '국수'라고 적힌 집이 있었다. 그곳이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주인은 일본사람이었다. 그리고 라면을 먹었는데 김치까지 시켜먹었는데 맛은 별로였지만 하나시켜서 다같이 나눠 먹을 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브뤼셀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큰 건물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장관이었다. 그렇게 저녁까지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폭립 무한 리필 집을 미리 알아본 후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가게는 2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돼지갈비만 원없이 먹었던 것 같다. 그곳에는 분위기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맛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는 운 좋게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하루 동안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두 피곤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1/7 룩셈부르크 여행

벨기에에서 열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이 참 신기했었다. 그 덕에 우리는 열차를 많이 타서 유럽에서 기차표를 외우듯이 했었다. 룩셈부르크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엄청 좋았다. 그때까지 사용했던 숙소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또 걸어서 시내를 가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으나 편찮다고 하여 같이 갔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내에 볼거리가 다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누어서 다니려 했지만 밥을 먹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는 친구가 밥도 못 먹고 옆드려 있어서 보호자인 교수님과 몇 명을 데리고 택시를 타서 병원으로 향했다. 남겨진 나를 포함한 친구들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룩셈부르크에 하루만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돌아오기 전까지 둘러 보기로

했다. 역시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라 그런지 잘 되어있었고 관광객들도 많아 보였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기념품등을 사면서 숙소까지 천천히 걸어와서 병원 갔다 온 친구들을 마중했고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서 걱정을 덜었고 그 친구는 당분간 약을 먹고 다녀야 했다.



1/8 엔트베르펜 여행

엔트베르펜은 쇼핑의 거리로 유명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엔트베르펜으로 와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저녁에는 다 같이 쇼핑을 하면서 심신을 달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브랜드인 화장품들이나 의류들이 유럽에서는 거의 반값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산 거 같기도 하다. 쇼핑은 역시 유럽이다.



1/9 로테르담 광장 관광

로테르담 광장을 관광하였다. 광장 여기저기 볼 것도 많았고 밑에 사진은 광장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이다. 로테르담은 또한 홍합탕이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이다.



1/10 로테르담 항만청 견학

로테르담은 항구 도시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항만청 또한 발달되어있다. 항만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 배의 출항 간격이 좀 길긴 하였지만 반드시 가보고 싶었기에 기다리며 항만청에 입성했다. 항만청 근처에는 항만청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 입장료는 없어서 맘 놓고 관람 할 수 있는 곳이었다.



1/11 헤이그 여행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 있는 마우리츠하이츠 박물관에 갔다. 이 박물관은 진주 목걸이 소녀가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 외에도 화가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입장료는 13유로 정도하는데 꼭 가볼만한 여행지이다.

헤이그란 지역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이준 열사가 일제시대 때 헤이그 특사라는 임무를 수행한 곳이다. 먼 타지에서 한글과 태극기가 있는 작은 건물을 보니까 뭔가 몽클했다. 비록 우리가 갔을 때 리모델링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번에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곳이다.



1/12 암스테르담 여행

이 날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여행을 하였다. 고흐박물관 및 하이네켄 박물관,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방문하였는데 굉장히 좋았다. 고흐박물관은 고흐의 일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이네켄박물관은 술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견학을 끝난 뒤 파티분위기로 즐길 수도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1/13 잔세스카스 여행

풍차의 마을이라는 잔세스카스를 향해 떠났다. 중간에 경유역에 레고마을이라는 잔담이라는 도시에 들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레고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풍차마을은 많은 풍차들이 있었고, 사진을 어디에서 찍어도 예쁘게 나와서 좋은 눈호강을 하였다.

1/14~15 귀국

오후 2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를 떠났다. 많은 추억을 남겼고, 많은 기념품을 사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베네룩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지만 20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추억이라서 굉장히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노력할 생각이다.

